

광주 아셈 문화장관회의...문화 행사도 풍성

오늘~26일 '아셈 문화주간'

학술회·오케스트라 공연 등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광주 아셈(ASEM) 문화장관회의를 계기로 국제적인 학술토론회와 풍성한 문화행사가 펼쳐진다.

19일 광주시에 따르면 문화장관회의(22~24일)에 맞춰 '아셈 문화주간'(20~26일)을 지정해 문화계 흐름을 진단하고 광주문화의 매력과 저력을 선보이는 다양한 행사가 집중적으로 열린다.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24일)과 '새로운 고전 : 전통 오늘의 일상' 등 무료 관람 행사도 많다.

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에서는 19~22일 '2016 아시아 문화포럼'이 진행된다. 광주시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주관하는 포럼은 '문화, 기술 그리고 창조성 : 창조산업과 도시'를 주제로 열린다.

김우창 이화여대 석좌교수, 일본의 마츠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 사무총장, 창조도시 전문가인 영국의 찰스 랜드리 등 화려한 기조발제 한다. 문화포럼 부대행사로 진행되는 청년캠프에는 중국, 인도, 베트남, 브라질, 루마니아 등 14개국 청년들이 문화로 엮인 지구촌을 구상한다.

문화계 '대세'로 떠오른 웹툰에도 물러온다. 오는 23~26일 아시아문화전당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의 공연 모습.

일원에서 열리는 제1회 광주 세계웹툰 콘텐츠페스티벌은 웹툰엔츠 산업 생태계를 광주에 조성하는 일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웹툰, 세상에 포효하라'는 주제로 멀티채널네트워크 협회 소속 크리에이터 23개팀, 13개 공연팀, 48개 기업 등이 참여한다. 웹상에서 '어린이의 대통령'으로 불리는 도티, 양명, 홍보대사로 임명된 대도서관, 데이브 등 '온라인 스타'들도 팬들과 만남을 앞뒀다.

아시아문화전당 주변에서 격조로 진행된 프린지 페스티벌, 대인 예술아시장은, 예술의 거리도 특별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매주 토요일 문을 연 대인 예술아시장은

23~25일 특별개장한다. 오는 25일 열리는 프린지 페스티벌은 문화장관 개최 의의를 살려 '화이부동'(和而不同)을 주제로 정했다. 광주시립극단의 뮤지컬 '전우치'는 광주 금남공원 야외무대에서 15일부터 3주간 관객을 만난다.

문화전당에서 열리는 아시아전통오케스트라 공연은 아셈문화장관회의 개최 기념공연이다. 아시아 11개국 전통악기가 빛내는 화음을 감상하는 기회다. 문화전당 정보원에서 열리는 '새로운 고전 : 전통 오늘의 일상', '타고르-범세계주의자의 예술과 사상'전은 무료 개방된다. 새로운 고전...은 전통공예에 현대적 감각을 접목한 작품을 선보이고, '타고르...'는 아시아

최초 노벨문학상 수상자 타고르의 삶과 예술을 조명하는 전시다.

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은 호랑이와 소금장수의 이야기를 줄거리로 잡은 '뒤집힌 호랑이'(21일~24일)와 여행을 떠나는 어린이의 에피소드를 그린 '찰리의 여행가방'(25일) 등 다양한 무료공연을 진행한다.

김일용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실장은 "아셈 문화장관회의와 연계한 아시아문화포럼, 세계웹툰페스티벌, 프린지페스티벌 등으로 광주가 세계와 문화가치를 공유하는 소통과 교류의 장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지난 17일 캄보디아 캄프스푸주(州) 광주진료소 개원 2주년 행사가 열린 가운데 진료소 앞 마당에서 현지 주민들과 광주지역 의료진·봉사단원들이 화합을 다지고 있다. /캄보디아 캄프스푸=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진료·수술봉사 이어 질병예방도 책임진다

조선대병원 전자현미경 기증...위생상태 점검 등

개원식이 끝난 뒤 아이퍼스트 소아과 정성현 원장, 조선대병원 류마티스내과 김윤성 교수, 청연한방병원 이근영 원장, 아이안과 서정성 원장과 의료진 등은 이틀간 500여명의 환자를 진료했다.

특히 조선대병원은 개원 2주년을 기념해 전자현미경을 기증하고, 박선옥 임상병리사를 파견해 진료소 인근 마을 주민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기생충 검사를 벌였다. 현지 주민들의 위생 상태를 점검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진료와 수술 중심이었던 광주진료소가 질병예방 차원의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위한 작업이다.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JB금융지주 관계자들도 참석해 봉사활동을 벌였으며, 향후 캄보디아 봉사활동 지원 등에 대한 논의도 진행했다.

문시연(문정영교 3)·이예림(문산중 1)양 등 청소년 7명도 참석해 현지 마을 어린이들과 보람찬 시간을 갖기도 했다. 현지 마을과 학교를 찾아가 봉

사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우기가 시작될 탓에 낮 최고기온이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이었지만, 광주진료소의 의료봉사활동 열기는 더욱 뜨거웠다.

한편, 올해로 개원 2년을 맞은 캄보디아 광주진료소는 지금까지 4만여명의 현지인들에게 '광주 인술'을 제공했고, 현지 어린이 4명을 초청해 광주 조선대병원 등에서 수술을 해주기도 했다.

특히 광주 진료소가 문을 열기 전에는 인구 10만3000여명의 캄프스푸 주민들 중 2.5%(2640명)에 불과했던 의료혜택 수혜율이 광주 진료소 개소 이후 22.8%(2만3700명)로 20%포인트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프스푸주 정부는 "광주 진료소의 진료활동 홍보를 강화해 내년에는 의료 혜택 수혜율을 25%까지 늘릴 예정이다"고 밝혔다.

/캄보디아 캄프스푸=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제주서 DMZ까지 4500km '코리아 둘레길' 만든다



목포~화성 서해안길 등 4개 구간...산티아고 순례길 3배 정부, 연간 550만명 방문·7200억원 경제효과 기대

동·서·남해안과 비무장지대(DMZ) 접경지역 등 약 4500km가 걷기 여행길인 '코리아 둘레길'로 조성된다. 이 둘레길은 여수~통영~울산을 잇는 남해안길, 목포~군산~화성을 잇는 서해안길, 연천~화천을 잇는 평화누리길, 강릉~울진~울산 간 해파랑길 등 4개 구간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정부는 17일 '문화관광산업 경쟁력 강화 회의'를 열고 전통시장·지역 관광 명소와 연계한 코리아 둘레길을 세계인이 찾는 걷기 여행길로 만든다는 목표를 밝혔다.

코리아 둘레길은 동해안의 해파랑길, DMZ 지역의 평화누리길, 해안누리길 등을 연결한 전국 규모의 걷기 여행길로, 스페인 북부 산티아고 순례길(1천500km)의 3배에 달한다. 코리아 둘레길 조성은 각 지

역주민과 역사·지리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민참여형 프로젝트로, 정부는 민간 중심으로 추진위를 꾸릴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550만명 방문, 총 7천200억원의 경제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코리아 둘레길 외에도 최근 문제가 되는 관광업계의 저가 유치 경쟁과 바가지 요금 등을 근절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을 높이며 문화관광 분야 등에서 4만3000여개의 새 일자리를 창출해내기 위한 다양한 대책이 발표됐다.

정부 대책에는 주거용 주택에서 숙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유민박업을 강원, 부산, 제주 지역에 시범적으로 도입한 뒤 내년에는 가칭 '숙박업법' 제정을 통해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또한, 강남과 삼양 등을 'K컬처 존'으로

지정하고, 지난 4월 개관한 K스타일 허브와 개관 예정인 K컬처 밸리, K익스피리언스를 복합문화관광 명소로 만든다. 고궁 주변 관광버스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도심 5대궁 일대에 관광버스 승하차장(Drop Zone)을 지정한다. 승하차장은 승객이 버스에 타고 내리는 시설로, 관광버스 주차는 도심 외곽 주차장으로 분산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경북공버스타장은 내년 초에 폐쇄된다. 이와 함께 고궁에 전담 관광통역 안내사를 배치하고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태국어·인도네시아어 등 소수언어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한다.

중국과 동남아의 상류층 관광객을 겨냥해 20~30대를 대상으로 K팝과 K뷰티를 활용한 맞춤형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등 체험형 프리미엄 관광 상품을 마련한다.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겨울여행주간을 신설, 비수기 관광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정원 "IS, 주한미군 시설·한국민 테러대상 지목"

국가정보원은 19일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인 IS가 국내 미국 공군시설 및 우리 국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하고 시설 좌표와 신상정보를 메신저로 공개하면서 테러를 선동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우리나라의 경우 오산·군산 소재 미국 공군기

지의 구글 위성지도와 상세 좌표·홈페이지 공개됐으며 국내 복지단체 직원 1명의 성명·이메일뿐 아니라 주소까지 공개됐다"면서 "우리 국민 신상정보는 복지단체 사이트 해킹을 통해 확보했으며, 미국 공군기지 좌표는 인터넷 공개자료 등을 종합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경축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오픈

Self MG 서양새마을금고

모집

주유 외상거래 고객

- 결제는 매월 말일 마감 후 결제 (월1회)
- 차량별 주유카드 제공 (거래투명성)
- 세금계산서 발행가능
- 차량별 주유 확인 가능 서비스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우대

서양새마을금고주유소

위치 | 광주광역시 남구 독립로 140
문의 | (062) 720-2872